

[http://dx.doi.org/10.20880/kler.2021.56.4.313.](http://dx.doi.org/10.20880/kler.2021.56.4.313)

국어과 교사가 경험한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 연구

이해숙 광신중학교 국어과 교사

- * 이 논문은 제7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1.4.17.)에서 개인 발표한 것을 하위 주제별로 내용을 나누어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하위 주제 중 국어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의 국어과 온라인 활동 중심수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2021.6.30.)'로 발표하였다. 조언해주신 경인교대 이선영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서론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각급 학교들은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쌍방향 수업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쌍방향 수업이라고 해도 교사가 상호작용 없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은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질 것이다(전재학, 2020).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수업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활동중심수업이 필요하다(이호, 2018: 19). 활동중심수업은 학습자의 수업참여,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전략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승아·강지혜, 2020: 557).

그러나 대면수업에서도 그 설계에 특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활동중심수업을 온라인상에서 설계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김혜진 (2020: 632-634)에 따르면 교사들은 일방향 수업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백병부·정재엽(2020: 39)의 연구에서도 여러 교사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낮은

경험치가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이 쌍방향 수업 자체를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을 설계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에게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이 대면 수업에 대비하여 지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어 원격 수업의 설계와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이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학기 비대면 쌍방향 수업 기간¹⁾에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을 실천한 교사들의 경험에서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정 수업 방법이 지니는 장점을 파악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으며, 그 수업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가 무엇일지 짐작하기 쉽다. 한편 수업 방법이 지니는 단점을 파악하면 수업 중에 교사나 학생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해당 수업이 가져올 수 있는 실패의 한계선을 가늠할 수가 있다.²⁾

-
- 1) 2020년 1학기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가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2) 모든 경험과학적 연구는 우리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특정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이남인, 2005: 111), 본 연구는 보편적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일반론 추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범상치 않은 속성을 지닌 사례’나 ‘기존 연구로 탐색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사례’에 대해 증거수집의 완전성을 추구하여 연구하는 방법인 사례 연구(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8: 182-183)와는 연구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II. 선행 연구

1. 활동중심수업의 의미

활동중심수업의 원어는 Activity-Based Instruction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활동중심학습(Activity-Based Learning)이 있는데, 가르침과 배움은 나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instruction은 교사의 입장에서, learning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Activity라는 단어는 ‘능동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활동’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Suydam & Higgins(1977)는 교육자들이 Activity-Based Instru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다양한 정의로 사용하는데 개념 상 공통적인 요소는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지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하거나 보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보면 활동 기반 교육은 교육 전략과도 관련이 있고, 프로그램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조작 가능한 자료의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Anwer(2019)는 활동 기반 학습을 ‘학생들이 수동적인 청취자로 앉아 있기보다는 학습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과정’으로 정의하며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능동적 학습방법은 (a) 교실에서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 (b) 학습환경에서의 학생들 간의 협업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기존의 교육방법과 다르며, 이 두 가지 항목은 ABL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Perera(2021)은 게임을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노트를 쓰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등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활동(activity)이라고 보고,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학습의 기반으로 삼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Activity-Based Learning이라고 정의하였다. 활동의 예로는 연극, 퀴즈, 조별 토의, 찬반 토론, 역할극, 교육용 게임,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 현장 학습(field work), 발견 학습, 프로젝트 등을 들었다.

본고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퀴즈, 토의, 문제 해결 등 ‘특정한 종류의 행동’으로서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활동중심수업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 참여와 능동성의 의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권승아·강지혜(2020)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권승아·강지혜(2020: 555-556)에서 활동중심수업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수업이다. 주요 교수 전략은 첫째,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결되도록 재구성하는 것, 둘째, 학습자가 직접 혹은 팀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는 것, 셋째,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교수자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넷째,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내용 및 활동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은 온라인상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 예를 들면 전·편입으로 인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나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게 하기 위해 —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어서 학교 수업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현재의 그것과는 용도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에서 더 명세화할 부분을 찾고자 한다.

이선영(2020: 287)에서는 “대면수업에서는 교사의 말이 끝나기까지 학습자가 기다려야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선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피력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조회할 수 있다.”며, 온라인 학습 상황이 학습자들에게 대면수업 상황보다 평등한 상호작용적 지위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반면, 주영진·박동숙·정금희·손새로·Qu jing(2020)의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서는 소통 결핍의 양상이 나타난다. 주영진 외(2020)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인터뷰하여 그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맥락과 실재감의 결핍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수업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 일상적인 대화나 인간적인 교감이 사라져 낯선 분위기 속에서 수업하는 것, 교수의 수업 주도가 없을 경우 1분 이상 이어지는 온라인상의 침묵에 불편감을 느끼는 점 등의 단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문자 소통 문화를 만들어서 일인방송 같은 친근함을 조성하고 학생들은 수업 종료 직후나 쉬는 시간에 비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교수자와 관계를 구축하며 적응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은 ‘에브리타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이용하여 학습자들끼리 소소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였다.

이선영(2020)과 주영진 외(2020)의 소통 양상은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소통 양상이 중·고등학교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주영진 외(2020)에서와 같은 단점들이 나타난다면, 쉬는 시간에도 업무로 바쁘고 세컨드스크린을 사용할 수도 없는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들이 맥락 공유, 실재감 향상, 관계 형성, 학습자끼리의 정보 공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연주(2020)에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경험한 한국어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적, 교육적 장애 요인과 대처 방안을 조사하였다(조사대상 105명 중 54명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42명이 혼합형 수업, 8명

이 비실시간 콘텐츠형 수업 실시). 인프라 부족, 디지털 학습도구 미비 등 환경적 장애 요인을 제외한 교육적 장애 요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23.6%), 수업 내 교수활동의 설계(20.8%), 과제 검사 및 피드백(16.3%), 시험 및 평가방식(14.6%) 등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에서 이 네 가지 문제(대면 수업에 대비되는 단점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자 한다.

권성연(2020)에서는 2020학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대상 18명 중 2명만 실시간 수업 실시). 참여자들은 온라인 수업의 비효과성으로 ‘수업 참여를 이끌거나 피드백하기가 어렵다’, ‘일방향적 정보제시형 수업으로 학습자에게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준다’, ‘관계 형성이나 태도 함양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으로는 ‘개별화 학습·개별화된 피드백이 가능하다’, ‘참여나 과제 제출이 개별적이어서 평소에 소극적인 학생도 온라인에서는 적극적이고 풍부한 반응을 보인다(특히 국어에서는 개인의 감상을 표현하는데 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함)’, ‘교과서 외에도 온라인 상의 다양한 사이트, 동영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권성연(2020: 758)은 국어과가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을 하기 좋은 강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깊고 상세하게 나아가 그 강점들이 온라인 수업의 어떤 근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정재림·최연우(2021)은 공동연구자 중 한 명인 최연우 교사가 온라인으로 소설 연계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수업을 한 사례를 통해 팬데믹 시대 문학 수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정재림·최연우(2021)에서는 에듀테크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으로 교사의 과정중심지도 및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 필자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여 단계별로 개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참여의 양적 증가와 달리 깊이 있는 통찰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던 점,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참여가 더 줄어든 점을 들

었다. 본 연구는 읽기, 문학, 쓰기 외에도 문법이나 말하기 등 국어과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본다는 점,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교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정재림·최연우(2021)와 차이점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질적 분석의 대상은 유튜브 실시간 강연 방송을 녹화한 영상물이다.³⁾ 본 연구는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을 심도 있게 경험한 교사의 기억 속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인식된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복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목적을 달성한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경험을 드러내도록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강연 내용은 단순히 회의용 플랫폼 또는 LMS 등의 작동법 등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개학 초기 사교육과의 비교에서 느낀 회의감, ‘정신 승리’와 같은 합리화 등 교사의 심리까지 생생하게 드러내고, 수업 중 자각한 온라인 수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반추하며, 학생 반응으로부터 용기를 얻은

3) 연구 대상 교사들이 블로그에 게재한 수업 기록 정리 자료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수업을 진행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brunch.co.kr/@kkamjangee> 김병섭 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nibang> 김애연 교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hehe26> 김영희 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ntertree91> 송승훈 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ktcj0925> 최지혜 교사 블로그

기억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면담 자료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앞서 권승아·강지혜(2020)를 바탕으로 활동중심수업을 정의하고 활동 중심수업의 4가지 주요 교수 전략을 소개한 바 있는데, 연구 대상은 이 정의와 교수 전략 조건에 부합하였다. 첫째, 강연자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실생활의 경험을 소재로 경험글을 쓰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쓰기를 하게 하였고 읽기 활동에서는 학습자 본인 스스로 읽을거리를 선정하였므로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실생활 및 관심사와 연결되었다. 둘째, 창작 후 고쳐쓰기, 책 대화하기, 시 낭송, 질문 만들기 등의 과제를 개인이 직접 또는 팀별로 해결하게 하여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상호간 답글을 주고받거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의 피드백을 받았으므로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한다. 넷째, 교사들이 진행한 활동들은 과정중심평가와 병행되어 학습자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업내용 및 활동 수준이 개선되었다.

유튜브 생방송은 2020년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있었다. 강연자 6명은 전부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소속 교사였다. 이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논문의 자료로서 가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논문에 기재될 개인정보, 연구 목적, 절차,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설명하였다. 강연자들은 본인들의 자료가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것을 환영하였고 자료의 원생산자로서 실명이 공개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영희 교사는 해당 연수 방송을 기획·연출한 교사이다. 송승훈 교사는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EBS ‘최고의 교사’에 출연한 적이 있다. 김병섭 교사, 김애연 교사, 송동철 교사, 최지혜 교사는 독서 교육, 문학 교육에 관한 책을 공동 집필하거나, 수업 기획 강연을 한 교사이다. 1인당 2차시 분량을 강연하였다. 강연 번호는 [1-1], [1-2], [2-1], …… 식인데, 앞의 숫자는 강연자 순서, 뒤의 숫자는 강의 차시이다. 각 강연은 공통적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1〉 강연자 공통 강연 구성

| 차시 | 형식 | 내용 |
|-----|--------|--|
| 1차시 | 강연자 발표 |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비대면 수업에 맞게 본인의 수업 방식을 쇄신한 경험을 발표함. |
| 2차시 | 질의 응답 | 수강생 교사들이 1차시 강연을 들으면서 패들렛에 질문을 올림. 강연자가 질문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함. |

전체 강연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튜브 '물꼬TV' 2020년 여름 연수의 전체 강연 내용

| 교사 | 강연 번호 | 강연 시간 | 전사 범위 | 동영상 제목 |
|------------|-------|----------|-------------|-----------------------------|
| 김영희 | [1-1] | 00:52:25 | 전체 | 가늘고 길게 가는 독서수업 |
| | [1-2] | 00:44:37 | 00:13:00 이후 | |
| 송승훈 | [2-1] | 00:33:22 | 전체 |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독서교육 |
| | [2-2] | 00:48:10 | × | |
| 최지혜 김애연 | [3-1] | 00:48:29 | 전체 | 두 가지 빛깔 시 수업 이야기 |
| | [3-2] | 00:44:23 | 00:22:00 이후 | |
| 김병섭 | [4-1] | 00:44:15 | 전체 |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6가지 수업 방법 |
| | [4-2] | 1:04:52 | 10:33~46:44 | |
| 송동철 | [5-1] | 00:53:19 | 전체 | 정신 승리를 듬뿍 얹은, 온라인 모둠 수업 보고서 |
| | [5-2] | 1:00:22 | × | |

2. 분석 방법

1차시 내용은 강연자별로 전체 강연을 모두 전사하였다. 강연 구성상 2차시 질의응답 부분은 연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장시간 계속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전사하지 않았다. 연구 문제에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암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전반부나 후반부를 제외하고 통으로 전사하였다. 총 4시간 38분의 동영상을 네이버 CLOVA를 이용하여 1차 전사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직접 들으면서 일일이 비교하여 수정하였다. [교사 코드][강연 번호][발화 시작][구어 문장] 순으로 코드를 붙여 전사하였고, 총 A4 용지 146쪽 분량의 강연 내용이 전사되었다. 전사 자료를 강연자 교사에게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연구자 역시 전사 내용을 전국국어교사모임 게시판의 강연 원고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현상학적 접근방법⁴⁾ 중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김분한·김금자·박인숙·이금재·김진경·홍정주 외, 1999). 자료를 전사한 후 연구 문제에 관련 있는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이 진술들이 평상시의 일반적인 수업 상황과 관계된 내용인지 아니면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속에 특히 더 강조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구분하였다. 구분하기 어려운 진술은 일단 의미 있는 진술로 기록해 두고 추후에 강연 전체의 맥락을 보고 다시 판단하였다. 선별된 의미 있는 진술들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되었다. 재진술된 문장으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고,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로 조직하였다.

첫 분석 결과 총 305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36개의 주제 모음이 분석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 모음이 많고 주제의 층위도 달랐다. 주제의

-
- 4) 본 연구가 실제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진술을 메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수업의 실제적 모습과 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상학자들의 목표는 의식이 어떻게 경험, 의미, 그리고 —소위 의식의 의도적인 관계라고 불리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이두원 2019: 24) 장점과 단점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경험하는 사람에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식 속에 장점과 단점들이 어떻게 의미 지어진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렇게 정리된 의미는 동료교사나 후배 교사들에게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Husserl은 인간의 경험은 의식으로 구성되며 순수 의식의 현상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Eckartsberg, 1986; 이두원 2019: 24 재인용).

총위는 크게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어과 교사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을 실행한 경험의 의미’(206개의 의미 있는 진술, 22개 주제, 6개 범주),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72개의 의미 있는 진술, 9개 주제, 2개 범주)’,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영역별 내용’(27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 나누어졌다. 이 내용들을 소정 분량의 논문 형식에 한꺼번에 담아내는 것은 무리였다. 그리하여 이 중 앞의 두 내용을 각각 논문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⁵⁾

장점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은, 강연자 교사가 직접 ‘장점은……’이라고 언급한 부분, 내용상 ‘좋았다.’, ‘쉬웠다’, ‘잘 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 이들과 관련된 진술에서 온 것이며, 단점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은 강연자 교사가 직접 ‘단점은’이라고 언급한 부분, 내용상 ‘안 좋았다.’, ‘어려웠다’, ‘잘 안 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 이들과 관련된 진술에서 온 것이다. 연구자가 임의로 장단점을 확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 박사학위자 국어과 교사 두 명에게 전사 자료를 읽고 주제 분류와 범주화를 검토하게 하였다. 강연자 교사들에게도 최종 분석 결과를 보내어 검토하는 단계를 마련하였다.

IV. 연구 결과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과 관련하여 72개의 의미 있는 진술에서 9개의 주제 모음과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5)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의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해숙, 2021)로 발표되었으며, 여기에는 국어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겪은 고군분투와 문제해결과정이 담겨 있다. 세 번째 내용은 진술양이 다소 빈약하여 현재는 생략하나 여전히 학계의 관심사이므로 자료를 보완한 후고를 기약한다.

〈표 3〉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 주제 | refer- ence 개수 | 주제 모음 | 범주 |
|---|-----------------------|-------------------------|---------------------------------------|
| - 음성 언어 동시 발언이 불가능하여 분위기 침체 | 5 | 1. 수업 분위기 침체 | 1. 국어과 온라인활동 중심 수업의 단점 |
| - 비언어적 표현의 인식이 어려움 - 좀 소회의실은 모둠별 대화 관찰 곤란 | 4 5 | 2. 교사 실재감 부족 | |
| - 학생들 간에 연결감을 못 느끼 - 학생들끼리 서로 수업 흐름을 묻지 못함 | 3 2 | 3. 학생간 연결감 부족 | |
| - 패들렛은 익명 게시가 가능하여 피드백 곤란 - 패들렛은 접근 경로의 제한 있음 | 1 2 | 4. 접근 경로의 제한 | |
| - 문자로 토의 기록 보존 - 자료의 보관(archiving) 및 복사 용이 - 학생의 사고 과정 및 발전상 확인 - 평가 기록의 객관화 | 6 3 3 2 | 5. 자료의 자동적 기록 및 누적 | |
| - 모둠 당 참여 인원의 확대 - 오픈 채팅 시 교사의 모둠 관찰 용이 - 자료 공유의 편리성 - 피드백의 편리성(의욕 상승) | 3 2 5 3 | 6.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소통 증가) | |
| - 병렬 수행으로 발표 진행 시간 축소 | 2 | 7. 발표 진행 시간 축소 | |
| - 피드백 표적의 시각화 - 문자 토의로 밀도 높은 대화 - 문자 토의로 사고 심화 - 끼어들기 어려워 정리된 생각 발화 | 2 2 2 3 | 8. 사고의 집중 및 심화 | |
| - 손글씨 쓰는 피로 감소 - 작품 완성에 필요한 부수적 능력에 대한 부담 감소 - 대면 대화보다 메신저 대화 활발 - 대면 말하기보다 셀카 영상에서 말하기 활발 - 대면 질문보다 온라인 질문이 활발 | 2 3 2 1 4 | 9. 창작과 발표에 대한 부담 감소 | |
| 합 | 72 | | |

1. 온라인 국어과 활동중심수업의 단점

1) 수업 분위기 침체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경우, 동시 발언이 불가능하여 누구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토의 분위기가 침체되기 쉽다. 온라인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교실 환경에 비해 사소한 대화나 자유 발언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이는 교사나 학생들의 심리적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송동철[5-1][19:25] 착한 애도 대답을 안 하는 게 이게 온라인 수업의 특징, 그러니까 줄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의 특징이었어요. (중략) 또 어떤 아이들은 주변 소음이 있으면 마이크를 꺼놓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 이제 마우스를 만져서 혹은 화면에서 터치해서 소리를 켜고 아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중략) ‘낄끼빠빠가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고.

강연자 교사는 학생 전체에게 발문하기보다는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 교사의 수업화법을 바꾸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소통 양상 면에서는 이선영(2020: 287)에서 언급된 장점보다 주영진 외 (2020)에서 언급된 단점이 많았다. 이선영(2020)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와는 달리, 신상이 드러나는 수업에서 채팅창에 의견을 쓰는 행동은 타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수업 흐름을 끊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선영(2020)에서는 ‘온라인 학습 상황이 학습자들에게 대면수업 상황보다 평등한 상호작용적 지위를 제공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역으로 구성원들이 평등한 상호작용적 지위에 대한 합의를 암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폐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로 국어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높이며 채팅창 활용을 더 권장해야 한다.

2) 교사 실재감 부족

온라인 수업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과 인식이 어렵다. 이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미묘한 반응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여 교사 실재감이 부족하다. 또 줌 소회의실로 토의할 경우, 교사가 모둠을 순회 할 수 있으나 한 모둠씩만 관찰 가능하고 교사가 모둠에 불쑥 입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어색해진다.

송동철[5-1][31:39] 온라인에서는 손 못 드는 친구들 도와주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은 공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눈치껏 그 아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강연자 교사는 5명 정도의 개인별 답란이 함께 나열된 모둠공동 활동지를 구글 문서상으로 제공하고 활동지들(4 모둠 정도)을 오가며 관찰하여, 쓰기가 정체된(커서가 움직이지 않는) 학생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위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3) 학생 간 연결감 부족

온라인 수업에서는 노드 간 연결의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 대 학생(Student-to-Student)의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간의 일대일 대화가 불가능하여 “선생님이 지금 뭐 하래?”와 같은 사소하고 허물없는(informal)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수업의 흐름에 못 따라 오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연결감이 부족해진다. 앞서 주영진 외(2020: 823, 824)에서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소소한 정보를 공유하나,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은 인증 불가로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의 폭력(Cyber Bullying)이 염려되어 이를 권장할 수도 없다.

송동철[5-1][20:52] 답답했던 건, 활동 안내를 할 때 안 그래도 아이들은 교실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자꾸 “뭐 하래?”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주위 웃음 터짐. “맞아.”라고 맞장구침.). 근데 온라인상 “야! 뭐 하래?” 하는데 그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뭐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이 정말 속출했습니다.

강연자 교사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방식은 IV.1.2)에서 단점을 극복한 방식과 동일하였다. 맥락을 놓친 학생도 눈치껏 주변 친구들의 답안을 실시간으로 모방하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강연자 교사는 학생들 간의 정서적인 연결감을 위해 말하기 활동을 이용하였다. 송동철 교사는 학생들끼리 지목 릴레이를 하게 하고, 송승훈 교사는 구술평가 연습을 줌 소회의 실에서 동료간 체크해 주기로 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향상시켰다.

4) 접근 경로의 제한

접근 경로(access path)는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접근하거나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경로를 뜻한다. 패들렛의 경우 학습자들이 로그인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처음에 자신이 썼던 동일한 기기에서만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작성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처음에 썼던 기기가 아닌 기기에서 로그인 없이 글을 쓰면 익명의 기록이 발생하여 교사가 피드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애연[3-1][26:10] 로그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달거나 글을 달 때 익명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실명을 써라.”라고 안내를 하지만, 막 댓글이 달린 거를 보면 안 다는 경우도 있어서 피드백을 확인할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토의를 통해 의견을 합리적으로 교환하고 조정하는 것 자체가 주요 학습 내용인 국어과의 특성상, 이러한 대화형 프레젠테이션 플랫폼에서 접근

경로가 제한되는 점은 다른 교과에서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

2. 온라인 국어과 활동중심수업의 장점

1) 언어활동 자료의 자동적 기록 및 누적(archiving)

온라인 국어과 활동중심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디지털화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모든 자료가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누적된다는 점이었다. 학습자들은 토의 내용이나 자신의 글쓰기 결과물을 다음 차시 활동의 기반 자료로 사용하거나 완성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특히 오픈 채팅의 경우 문자화된 토의 이므로, 여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학생과 교사가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과 같은 학생부 기재 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다. 누적된 기록은 포트폴리오가 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1-1][47:55] 1차 토의에서 “이 모둠 아주 잘 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라고 다짐했잖아요. 저는 이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게 끝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2차 토의할 때 “스크롤 올려 봐. 지난번에 저희가 쓴 거 있지, 그거? 그거 적용해서 해.”라고 하면, 그게 적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줌 등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은 회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말하기 활동, 시낭송 활동 영상을 녹화함에 있어서 특별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음성 언어 평가 자료가 녹화되기 때문에 기억이 연장되며, 교사 본인의 순간적인 기억에만 의존할 때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의사소통의 방법과 내용,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학습 내용인 국어과에서 이러한 점은 매우 유리한 특징이다.

2) 활동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소통 증가와 의욕 상승)

접근성은 시스템공학·인간공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교통·시설·제품·서비스·디자인·권리·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텍스트 및 디지털화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친구의 글쓰기 자료와 토의 내용에 동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피드백 방법 또한 간편하여, 공동으로 글쓰기나 창작시 공동 뇌고 활동을 하기도 편리하다. 오픈 채팅을 통한 모둠 토의의 경우, 모둠 내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없으므로 한 모둠 당 참여 가능 인원도 확대된다.

이러한 속성들로 공식적인 소통이 증가한다. 언뜻 앞서 ‘학생 간 연결감 부족’에서 소통이 부족해진다고 한 것과 지금 언급한 ‘소통 증가’는 모순되게 보이나, 전자에서 부족해진 소통은 ‘격식 없고 교사가 관찰할 수 없는’(informal) 소통이라면,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증가하는 소통은 ‘격식을 갖추고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formal) 소통이다.

김영희[1-1][43:21] 4인이 좋은 게 아니라 이만한 공간으로 모이니까 소통이 가능한 거고 여섯 명의 모둠 활동이 힘든 건 여섯 명이 나쁜 게 아니라 여섯 명이 앉으면 넓어야 되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채팅은 그런 게 다 물리적 한계가 없으니까 여덟 명이 해도 괜찮아요.

글쓴이가 독자의 반응을 빨리 확인하게 되면 글쓰기 의욕이 높아진다.

송동철[5-1][23:35] 아이들이 자기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독자랑 뭔가 소통을 하면서 글이 나아지고 이런 기회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있는데,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애들이 같은 문서에서 쓰면 쓰면서 과정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댓글도 달고 감탄도 해 주고 막 이러면서 글쓰기에 아이들이 재미를 많이 붙였어요.

3) 발표 진행 시간 축소

온라인 활동 중심 수업에서는 병렬 수행으로 동시 포스팅과 붙여넣기가 가능하므로 발표 진행 시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도 공통적일 수 있는 장점이나, 국어과는 작문이나 답변 작성에서 텍스트 작성량이 다른 교과에 비해 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수업에 비해 특히 유리한 점이 된다. 또한 줌 소회의실 기능의 경우 타이머 후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 교사가 시간을 통제하기 유리하고, 모둠 대화가 한정된 시간 내에 진행된다 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최지혜[3-1][33:00] 한 명이 “이번에 내가 올릴게.” 해서 자기 자료를 구글 문서에서 갖다 붙이면 친구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공유하는 활동을 했었고.

4) 사고의 집중 및 심화

앞서 음성 언어의 동시 발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들었는데, 이 때문에 강연자 교사들은 문자 토의를 선호하였다. 문자로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음성 언어나 어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고를 더 많이 정돈하고 문장을 정리하여 표현하게 된다. 타인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할 때도 음성 언어를 듣고 이해할 때보다 더 천천히 깊게 사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더하여 카카오톡, 패들렛의 답글 기능이나 구글 문서의 메모 기능 등으로 피드백 표적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토의의 밀도나 교사 피드백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

송동철[5-1][35:29] 글만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 대화의 밀도가 높아진 게 장점이었고.

음성 언어로 토의나 발표하는 경우에도 ‘끼어들기’가 부담스러워, 발표

자들은 정리된 생각으로 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옆길로 새는 현상이 현저히 줄게 된다.

송동철[5-1][26:53] 화상 회의로 하는 수업이란 게 친구들이 말하는데 끼어 들기가 어렵다 보니 장점은 얘기가 산으로 안 간다는, 그런 경우가 되게 적다는 거고요.

정재림 · 최연우(2021)에서는 학생들 자서전의 질적 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정이 용이한 온라인 글쓰기의 특성으로 인해 자기 검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활발한 문자 토의와 시각화된 피드백으로 인해 사고가 심화되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정재림 · 최연우(2021)에서 학생들 글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았던 이유가 온라인 글쓰기 자체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서전이 사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동료간 공동 퇴고가 불가능하여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5) 창작과 발표에 대한 부담 감소

온라인 수업에서는 물리적 실체를 지닌 작품을 만들거나 손글씨로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서 디지털화된 시나 시화, 소설 등을 창작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송동철[5-1][22:24] 글쓰기 수업에는 되게 좀 가능성을 좀 많이 봤어요. (중략) 키보드로 쓰니까 일단 손으로 쓸 때보다 질도 나아지고 양도 많아졌고.

김애연[3-1][20:14] (읍내에서) 막 그라데이션 시화를 사고, 동생은 막 나뭇잎을 주워서 (붙이는 시늉을 함) 나뭇잎을 막 붙여 가지고 시화를 제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오. 너무 막막했는데. 디지털 시화는 그런 재능에 상관없이, 또 시의 결과물에 영향을 덜 주면서, 자기가 직접 시화를 완성하는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또한 실물 인간을 대면하기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대면하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학생 세대들은, 대면 상황의 대화, 발표, 질문보다는 메신저 대화, 셀카 영상 발표, 문자 질문을 선호하는데,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

김병섭[4-1][11:25] 교사로 17년을 살았는데 문법 수업을 하면서 한 학년에서 저한테 문법에 대한 질문이 200개 쏟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면수업으로 풀리고 격주로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실에서 저한테 질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김병섭[4-1][34:22] 학교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애들이 화면 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V. 결론

이상의 내용을 통해 대면 수업 대비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국어과 활동중심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단점은 다른 교과의 온라인 수업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인 반면 장점은 국어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보다 특히 유리한 성질이 있었다. ‘자료의 기록과 누적’은 문학 감상 과정 및 언어 활동 과정에 대한 메타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기억을 연장하여 평가를 객관화한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공식적 소통의 증가와 의욕 상승을 가져오고, ‘발표 시간 축소’는 다른 과목보다 긴 텍스트를 쓰거나 발표

해야 하는 국어과 수업에서 수업 효율성을 높여준다. ‘사고의 집중 및 심화’, ‘창작과 발표에 대한 부담 감소’는 각각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이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과 수업은 ‘온라인’이라는 조건을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국어과 내 영역들 중에서는 쓰기, 문학 창작, 말하기 영역 수업에서 강점이 두드러지고, 활동 중에서는 토의에서 특히 강점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의 결과 중, 문학 수업, 쓰기 수업에서 학생의 누적적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 쉽다는 점, 교사가 단계적으로 개입하기 용이하다는 점,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기존 정재림·최연우(2021)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의 강점이 두드러진 국어과 영역과 활동을 밝혔다는 점, 온라인이라는 수업 미디어의 어떠한 세부 속성이 학생과 교사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또한 학생의 활동 결과물에 관한 평가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종(文種)의 영향 등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앞서 본고에서는 조연주(2020)을 참고하여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에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를 네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첫째 문제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강연자 교사들은 줌 강의 외에도 발표 지목 릴레이, 줌 소회의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구글 문서 활동지 및 피드백, 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질문 수집, 패들렛을 이용한 창작물 및 의견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입체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줌 이외의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에 더해 학습자간 관계 형성 및 실재감 향상을 위해 국어과에서 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짝 활동 말하기’나 ‘릴레이 말하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수업 분위기 침체를 막기 위해 평등하고 편안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문제인 ‘수업 내 교수활동의 설계’는 셋째 문제인 ‘평가’와 넷째 문제인 ‘과제 검사 및 피드백’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온라인 교수활동

설계 및 평가의 내용은, 강연자 교사들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면 수업에서 실시하던 교수활동 및 평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소 교사가 견고하게 활동중심수업의 설계를 해 놓았다면 이를 충분히 온라인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었다. 대면 상황의 활동중심수업 설계와 평가에 대한 기초 실력을 다지는 것이 국어과 교사들에게 필요하고, 아울러 ‘온라인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숙련된 국어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련된 교사의 예시를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의 시작이 된다. 분석된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단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국어과 교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21.10.29.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권승아·강지혜(2020),「중학교 교과별 활동중심수업에서의 학습자 및 교사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0(9), 553-577.
- 권성연(2020),「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과 인식에 대한 탐색」,『교육공학연구』36(3), 745-774.
- 김분한·김금자·박인숙·이금재·김진경·홍정주·이미향·김영희·유인영·이희영(1999),「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29(6), 1208-1220.
- 김혜진(2020),「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0(20), 613-639.
- 백병부·정재엽(2020),『등교수업 한 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이슈페이퍼 2020-09)』,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8),『질적 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사.
- 이남인(2005),「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질학과 현상학 연구』24, 91-121.
- 이두원(2019),「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호 현상학적 재해석-문화간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방법론적 패러다임을 찾아서」,『커뮤니케이션학 연구』27(4), 21-37.
- 이선영(2020),「온라인 수업 담화에 나타난 교수실재감 양상 분석-EBS 초등 국어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중심으로」,『우리말 글』87, 281-315.
- 이호(2018),「활동중심수업이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현장·사례 연구보고서.
- 이해숙(2021),「코로나19 상황의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국어교육연구』76, 1-33.
- 전재학(2020. 9. 5.), 온라인 쌍방향 수업은 최고의 수업인가 최악의 수업인가, 에듀인, 검색일자 2021. 10. 27, 사이트 주소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1>.
- 정재림·최연우(2021),「팬데믹 시대, 문학 수업의 가능성과 한계-소설 연계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71, 9-42.
- 조연주(2020),「장애 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어 온라인 수업 발전 방향 모색」,『새국어교육』124, 297-324.
- 주영진·박동숙·정금희·손새로·Qu jing(2020),「온라인에서 보낸 한 학기: 디지털 대면수업, 그 경험의 의미」,『교육공학연구』36(3), 805-838.
- Anwer, F. (2019), "Activity-Based Teaching, Stud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6(1), 154-170.
- Eckartsberg, R. V. (1986), *Life-world experience: Existential-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es in psychology*,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erera, N. (2021), Activity -Based Learning, 검색일자 2021. 10. 27, 사이트 주소 <https://www.tktcambridge.com/activity-based-learning>.

Suydam, M. N. & Higgins, J. L. (1977), *Activity-Based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Recommendations from Research*, Columbus, OH: ERIC Center for Science, Mathematic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Ohio State Univ.

국어과 교사가 경험한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장단점 연구

이해숙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어과 교사들이 경험한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국어교사모임 교사들의 유튜브 강의 영상(물꼬 TV)을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방법의 장점은 언어활동 자료의 자동적 기록 및 누적(아카이빙), 활동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공적 소통 증가와 의욕 상승), 발표 진행 시간 축소, 사고의 집중 및 심화, 창작과 발표에 대한 부담 감소였다. 단점은 수업 분위기 침체, 교사 실재감 부족, 학생 간 연결감 부족, 접근 경로의 제한이었다. 국어과의 온라인 활동 중심의 수업의 단점은 다른 과목의 온라인 수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반면, 장점은,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법을 다루는 국어과의 특성상 다른 과목에 비해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어과 온라인 활동중심수업 방법의 좋은 사례들과 그 적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어 온라인 수업, 활동중심수업, 장점, 단점, 국어과, 코로나19

ABSTRAC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nline - Activity - Based Instruction Experienc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Lee Haesuk

This phenomenological study analyz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nline-activity-based instruction experienced by Korean language teach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purpose, Colaizzi's method was used in analyzing a video clip of a YouTube lecture(Mulkko TV). The advantages of online-activity-based instruction in the Korean language class were identified as automatic archiving of activity data, increased access to activity data, decreased presentation time, focused and intensified thinking, and reduced burdens of writing and presentation. The disadvantages include an unlively mood, lack of teachers' involvement,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classmates, and restricted access to learning materials. While the disadvantages of online-activity-base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lasses are also commonly observed in other online classes, it offers greater advantages than in other subjects owing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of Korean language. This study provides substantial examples of online-activity-base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lasses and provides specific information on their applicability.

KEYWORDS Online Classes, Activity-Based Instruction, Advantage, Disadvantage, Korean Language, COVID-19